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14 호

2019 년 11 월 1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결과 공유 (10/24)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 선정
3.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세레모니
4. 코스피 100 대 기업 SDGs 이행 및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 결과
5. 제 4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안내 (11/8)
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및 협력 행사 안내
 - [공동주관] 제 2회 열린 SDGs 포럼 (11/8)
 - [협력] 제 4회 지속가능경영 비즈니스포럼 THE CSR 2019 Seoul (11/13)

■ 본부 소식

1. 기업인들이여, 모두 활동가(Activist)가 됩시다!
2. 유엔글로벌콤팩트, '타깃 성평등(Target Gender Equality)' 이니셔티브 발족
3. 기업 리더 30 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위해 UN 과 협력
4. 유럽 최초, 25 억 유로 규모 SDG 연계 채권 발행
5. [발간물 소개]
 - 건강한 지구와 사람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 (Business Leadership Brief for Healthy Planet, Healthy People)
 -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UN Global Compact Progress Report 2019)

■ SDGs 소식

1. [SDGs 솔루션] 물을 절약하는 청바지
2. [Goal 4, 7, 8, 15]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LG화학

■ UNGC 회원 뉴스

1. 한전, 2000억원 규모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
2. 수공, 청렴활동 강화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와 협력
3. NH투자증권, 'ESG 리포트' 국내 증권사 최초 발간

■ CSR 뉴스

1. "성장판 닫힌 지구촌..기업들 힘 모아야만 글로벌위기 돌파"
2. Korea Leaders Summit talks sustainability
3.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성료... "인권경영, 선언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4. 국민연금 "운용사보고서에 `사회책임투자` 담게 할 것"

5. "석탄발전 과감하게 줄인다"...2030년 온실가스 24% 감축 목표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신 연회비 정책 도입에 따른 연회비 청구서 발행일 변경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소식

1. 2019 UNGC Korea Leaders Summit 결과 공유 (10/2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9년 10월 24일(목),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9(UNGC Korea Leaders Summit 2019)'을 개최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주최로 진행된 본 행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10대 원칙과 SDGs를 기반으로 한 기업 지속가능성 이슈들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와 통찰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UNGC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과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에는 환영사 및 축사, UNGC LEAD 그룹 위촉식,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세레머니 및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반부패 프로젝트 'BIS' 런칭 세레머니가 진행되었으며, 오후에는 특별 세션 및 네 가지 이슈 별 분과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환영사에서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은 “본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기업, 정부, 시민사회 여러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기업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번 서밋이 지속가능성 비전과 도전과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00 대 기업은 한 해 동안 사회공헌 비용으로 세종시 예산에 1.5 배에 달하는 2 조 6,061 억원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기업은 기후변화, 일자리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고, 사회·환경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끈다”고 우리나라 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 행사에는 제 8 대 유엔 사무총장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인 반기문 명예회장, 이견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KT 사장이자, 커스터머 앤 미디어 부문장인 구현모 사장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했습니다.

반기문 명예회장은 'SDGs 달성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반 명예회장은 “다자주의에 의해서 세계를 이끌어 온 나라들이 다자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 기업이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UNGC 같은 조직이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1 만 4000 여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 회원사들의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 명예회장은 “전세계가 빈곤, 기후변화, 분쟁, 부패 등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SDGs 비전 중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환경·경제적 영향력에 대해 인지하고 굳은 결의로 기업 경영에 SDGs 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의 '반부패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을 주제로 한 기초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부패인식지수와 1 인당 GDP 가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가 10 점 상승할때마다 경제성장률이 0.52% 제고되고, 연평균 5 만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하버드의 연구에 따르면, 부패인식지수 10 점 상승 시 해당 국가 내 기업들에게 7.5% 의 세율 인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보듯, 국가 청렴 수준 제고는 도덕적인 당위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대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익위에서 민간부문 청렴수준 진단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모델을 올해 올 해 진단하여 도출할 계획이며,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렴경영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틀을 올 6 월부터 제공 중”이라고 설명하며, “부패는 우리사회 전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긴밀한 협력과 참여를 통한 반부패 활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각 부문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금번 서밋을 계기로 발족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의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DGB 금융지주, △(주)두산, △KT, △SK 텔레콤, △유한킴벌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민연금공단, △한국투명성기구 등 총 10 개의 UNGC 회원 기업 및 기관이 최초로 'LEAD 그룹'에 선정되어 향후 지속가능성의 국내 의제화를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대한 소개와 총 16 개 기업 및 기관의 WEPs 참여 세레모니가 이어졌습니다. 본 행사에는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여성신문, △KB 금융그룹, △(주)두산, △BPW 한국연맹,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양도시공사, △한국임업진흥원, △CJ 제일제당, △교보생명, △(주)롯데, △DGB 금융지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방산업기술원 등 총 16 개의 기업 및 기관이 본 세레모니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 기조연설자인 구현모 사장은 'KT의 SDGs & 따뜻한 비즈니스' 주제로 KT의 지속가능경영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구현모 사장은 "KT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성장동력은 사람을 위한 기술에 있다" 며 "KT의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이 투명한 정보, 공평한 기회,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곧 KT와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KT는 앞으로 사람을 위한 따뜻한 기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과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KT 지속가능경영 사례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오전 행사의 마지막은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한국 프로젝트인 'BIS' 런칭 세레모니가 장식했습니다. 본 행사에서 첫 런칭 된 BIS 프로젝트는 세계은행과 지멘스가 함께 런칭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2022 년까지 3 년간 진행되는 반부패 공동노력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런칭 세레모니에는 후원 기관 한국지멘스, 파트너 기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협력 기관 윤리경영학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내 BIS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찬 시간 이어진 오후 행사에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책임투자' 특별 세션과 기업과 인권, SDGs 와 비즈니스 기회,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통일과 SDGs 등을 주제로 한 이슈별 분과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 특별세션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책임투자>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책임투자> 특별 세션에는 최성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실장과 원신보 블랙록(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팀 본부장이 발표해주셨으며, 임대웅 UNEP-FI 한국 대표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최성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실장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활동 경과 및 현황을 발표하며, 국민연금의 주요 책임투자 활동을 3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번째는 ESG 리서치 체계를 구축 및 활용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주식 직접 액티브 운용 시 재무적 요인과 함께 ESG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주요 활동으로는 ESG 와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함으로써, 기존의 단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넘어서 사실에 대한 개선 방안과 계획을 논의하는 비공개대화를 수행 및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주요 활동으로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운영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동 보고 초안의 주요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최성제 실장은 국민연금의 향후 활동으로 공청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 진행 및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최종안 마련 등을 소개했으며, 국민연금의 투자활동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활동 및 방향성을 볼 수 있도록 2020 년부터 책임투자 관련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을 밝히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인 원신보 블랙록(BlackRock) Investment Stewardship 팀 본부장은 'Sustainable Investing and Investment Stewardship'이란 주제로 현재 자산운용업계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Sustainable Investing(SI)' 또는 'ESG Investing'에 대한 블랙록의 관찰 내용 및 관점을 소개했습니다. 원신보 본부장은 최근 5년 SI가 성장한 이유에 대해 가치관의 변화와 평판 관리의 중요성을 들고, ESG 이슈들이 앞으로 기업 밸류에이션 및 투자활동에 직결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SI의 중요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신보 본부장은 여성 리더가 있는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월등히 높다는 MSCI의 연구 결과와 탄소

배출량을 가장 적극적으로 감축한 기업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블랙록 자체 조사결과 결과 등을 공유하며 다수의 데이터에 입각한 증거들이 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말했습니다. 원신보 본부장은 자산과 ESG 가 우수한 기업들의 연계를 강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데이터임을 강조하며, 한가지 그 예로 보다 효과적인 도구로 금융계가 제시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TCFD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모인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TCFD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것을 제언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임대웅 UNEP-FI 한국대표가 좌장으로 참석하여 원신보 본부장, 최성제 실장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웅 좌장은 SDGs 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류 공동의 미션 이자 방향임을 명시하며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언하고, 점검 및 모니터링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며 특별세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세션은 사회적임 투자활동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국내외 동향 및 연구 결과에 기반한 사례들을 통해 사회적임투자와 그 영향력에 대해 학습하고 향후 우리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 분과세션 <기업과 인권>



그랜드볼룸홀 1 에서는 <기업과 인권> 분과세션이 법무부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분과세션은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경영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인권경영 및 사회적 가치 담당 실무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최근 발간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 실사(Due Diligence)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국내외 인권경영 동향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수아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은 인권경영 실현과 확산을 위한 정부 제도와 노력을 소개하며, 법무부에서 수립 중에 있는 인권경영지침의 공청회 개최는 인권경영 정책 수립과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하는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이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 및 실사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기업에서 활용가능한 인권 실사(due diligence) 5 개 요소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UNGC 한국협회에서 올해 실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현황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인권 실사 결과, 공시의 중요성 등 개선사항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사례로 양광복 국민연금공단 부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10 대 이슈를 접목한 국민연금 인권경영 실행 과제의 수립과정과 이행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 전문 조직과의 협력 관계 및 부서 운영에서의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발표자인 정재엽 창신 INC 부장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협력업체로서 고충처리 절차와 장애인 노동자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한 인권경영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창신 INC 는 고충의 특성에 따른 네 가지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하여 실효성을 높였고,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생산공장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어 제조업계 중견기업의 벤치마킹 사례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 패널토론에는 곽정수 한겨레 경제담당 논설위원, 이병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한정민 BSI Group Korea 전문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곽정수 논설위원은 기업의 인권경영이 글로벌 기준에서 필수사항이 되었으며, 한국 기업 현실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전체적인 기업 문화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사회책임경영을 유기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병화 변호사는 인권경영과 기업 이미지 간의 관계를 언급하며 그 중요성에 비해 중소기업에서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한 제도의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의 인권경영 방침이 중요하되, 기업을 향한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정민 전문위원은 인권경영이 기업의 한 경영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식적인 인권경영 지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세션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중견기업, 언론, 기업과 인권 전문가가 한데 모여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내외 동향, 실사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인권경영 내재화의 한계점, 시행착오를 파악하고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 분과세션 <SDGs 와 비즈니스 기회>



그랜드볼룸홀 3 에서는 <SDGs 와 비즈니스 기회> 분과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분과세션은 환경부의 K-SDGs 수립 및 이행 계획 소개와 기업들의 SDGs 이행 전략 및 사례 공유를 통해 SDGs 를 둘러싼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자 환경부와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첫번째 연사자인 맹학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과장은 'K-SDGs 수립 과정과 이행 전략'이란 주제로 SDGs 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의 상황에 맞게 122 개 세부목표 및 214 개 지표로 수립된 K-SDGs 를 소개했습니다. 맹학균 과장은 지속가능성 위기의 원인자도 해결사도 결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기업이 SDGs 이행에 있어 중대한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란 UNGC 한국협회 주임연구원은 UNGC 한국협회에서 실시한 '코스피 100 대 기업 대상 SDGs 인식조사' 서베이 결과를 공유하며, 우리 기업들의 SDGs 에 대한 인식 및 기여와 비즈니스 전략 및 운영의 통합 정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최근 발간한 <SDGs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과 <인 포커스: 기업의 SDGs 보고에 투자자 요구 반영> 발간물을 소개했습니다.

오수진 K-water 경영혁신실 부장은 'K-water 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SDGs 연계방안'을 주제로 K-water 가 SDGs 와 연계하여 추진 및 실현중인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물 복지 실현으로 국민 삶의 품격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K-water 의 사업과 직결되는 6 번 목표 '깨끗한 물과 위생'과 더불어 여러 SDGs 를 실현하는 사업들과 함께 물 서비스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강승성 아모레퍼시픽 CSR 팀 팀장은 'Beauty Inside Project'를 소개하며, 동 프로젝트의 목적인 대중의 SDGs 인식 제고를 위해 SDGs 를 흥미롭고, 쉽고,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드는 콘텐츠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아모레퍼시픽 임직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진행한 SDGs 이해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이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윤정 KT 지속가능경영단 팀장은 KT 의 'ICT Projects for SDGs'라는 주제로 KT 의 SDGs 추진경과 및 국내외에 진행중인 GiGA Story 프로젝트, 글로벌 감염병확산방지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앞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다양한 시각의 논의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한나 기자는 SDGs 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 답했습니다. SDGs 는 기업에게 있어 수동적 의미에서는 리스크 회피적 요소이지만, 앞으로 제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자와의 접점이 점차 넓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SDGs 는 기본 틀로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진 센터장은 기업들이 SDGs 와 연계된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확실한 'purpose-driven' 비즈니스 및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집중할 목표와 그에 상응하는 수치화 된 목표를 세우고, 네거티브 임팩트를 관리하며 투명하고 임팩트 있게 소통을 해야만 SDGs 목표를 보다 잘 이행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SDGs 와 비즈니스 기회> 세션은 정부 및 기업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SDGs 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실제 기업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기업이 SDGs 가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코스피 100 대 기업 대상 SDGs 인식 설문조사'와 'SDGs 비즈니스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 '인 포커스: 기업의 SDGs 보고에 투자자 요구 반영' 등 발간물들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SDGs 를 이행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분과세션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사파이어 홀에서는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분과세션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본 분과세션은 기업 내 다양성 증진과 성 평등 문화 내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기업의 여성 인재 육성 및 여성 임원 확대를 위한 정책과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윤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은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노력과 정책'을 주제로 공공기관 내 여성 임원 확대 정책과 민간부문의 여성역량강화 인식 확산 노력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별 다양성이 재무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어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내 성 평등 및 성별 다양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강민정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점차 높아져 왔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의 성

평등 수준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리더십 확대에 있어 장애요인과 성공요인을 인지하고 성별다양성 제고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적 플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기업의 우수 이행 사례로 롯데지주와 KB 손해보험의 여성인재 육성 시스템이 공유되었습니다. 손명정 롯데지주 인재육성팀 수석은 '롯데그룹의 Diversity Eco System'을 소개했습니다. 손명정 수석은 2004 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향상된 롯데지주의 여성인력 비중, 여성인재 채용률 및 여성임원 비율의 바탕에는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체계화된 다양성 인프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인재 육성과 더불어 남성육아 휴직 의무화 등 기업 내 성 평등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공유하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로드맵 수립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이어서 박영미 KB손해보험 인사부 부장은 'KB손해보험의 여성인력 육성 제도 Dream Campus(드림 캠퍼스)'를 주제로 여성인력 비율이 높은 조직 특성에 맞춘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특히 KB 손해보험의 '드림캠퍼스' 프로그램은 여성인력성장 저해요소들을 파악하여 해당되는 대안책을 마련하고, 여성인재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은 민무숙 나사렛대학교 객원교수(前 한국양성평등교육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황은미 커리어컨설턴트협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디지털 기술 혁신, 고령화, 조직의 신속성 강화와 같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여성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는 여성리더 양성의 실효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 교육을 제공하여 여성 이슈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이루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준철 여성신문 본부장은 여성 이슈 논의 확산에 있어 언론과 미디어 플랫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은 적극적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여성역량강화 관련 정책 및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 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은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이니셔티브'와 자가진단 툴인 '성 격차 분석 툴'을 소개하고, 협회에서는 국내외 관련 정책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내년 초 런칭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후 진행된 질의시간에는 발표자, 패널 및 참석자들이 함께 기업 내 조직이 성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정책 및 제도를 통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의 여성역량강화> 세션은 기업 실무자,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시민단체가 모여 기업의 여성역량강화와 실질적인 기회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향후 공공 및 민간부문이 발전해 나가야 할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세션 발표자, 패널 및 참석자들은 기업 내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리더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기업의 성별 다양성 증대는 곧 비즈니스 경쟁력 및 투자 기회 확대의 기반이라는 공통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 분과세션 <통일과 SDGs>



에메랄드 홀에서는 <통일과 SDGs> 분과세션이 개최되었습니다. 본 분과 세션은 '유엔전략계획 2017-2021' 등 SDGs 를 기반으로 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파악하고, 청년들이 SDGs 를 기반으로 기업 시민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리더십코리아의 협력 및 통일과 나눔의 후원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전병길 통일과 나눔 국장은 남북평화를 위한 아젠다 정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통일 준비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통일과 나눔의 지원 사업을 사회, 경제, 환경, 제도, 파트너십과 연계해 소개하며, 통일준비 기반형성, 국제적 통일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진희 삼정 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이사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 4 대 우선 목표(식량 및 영양안보, 사회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를 소개하며,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한국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의 협력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로 황진솔 더브릿지 대표는 탈북민 창업 사례 및 도전과제를 공유하며, 탈북민을 위한 안정적 성장 지원이 다가올 통일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청년들이 탈북민 기업에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탈북민을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임애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선임연구원은 고위험 분쟁 지역에서 기업의 책임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UNGC 의 평화를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Peace, B4P)

플랫폼을 소개하며 남북경제협력 및 남북 민간교류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우진 청년 패널은 2030 세대가 통일문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과 관련한 SDGs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이영찬 청년 패널은 많은 청년들이 통일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배 세대의 주도로 청년들이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통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더불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SDGs 가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목표로서 기능을 다할 때 참다운 의미가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통일과 SDGs 세션은 실무자와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 이슈와 연계된 SDGs 를 파악하고, 비즈니스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에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의 비즈니스 리더인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9'는 국내 공공·민간부문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속가능경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본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여러분들과, 금번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에 도움을 주신 후원, 공동 주최, 파트너, 미디어 파트너 기업 및 기관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사들과 긴밀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확산시키고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문보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그룹 선정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금번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9'를 계기로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UNGC 우수 회원 기관 및 기업을 선정하여 LEAD 그룹을 국내 최초로 발족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DGB 금융지주, △두산, △KT, △SK 텔레콤, △유한킴벌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국민연금공단, △한국투명성기구 등 UNGC 회원 기업 및 기관 총 10 곳의 'LEAD 그룹'은 UNGC 활동 참여와 대외 평가를 기준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산을 위해 각 분야에서 고루 선정되었습니다. 위 그룹은 향후 협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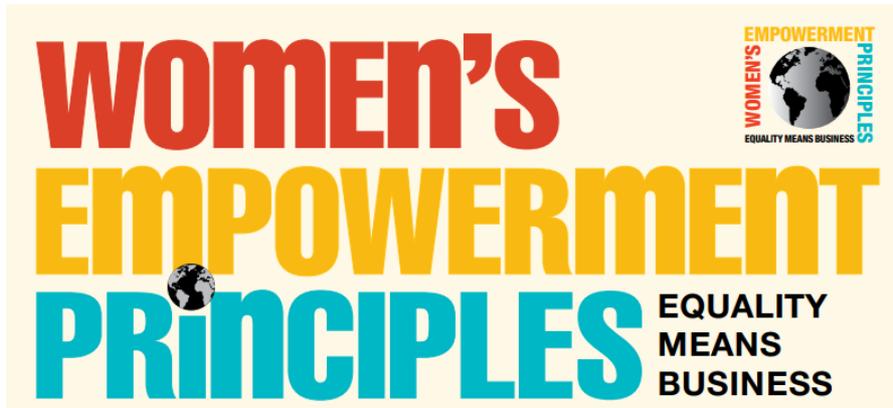
<LEAD 그룹 활동 내용>

-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 확산 및 SDGs 이행에 선도적 기여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프로젝트 참여 (파일럿 프로그램)
- 주요 행사 지원 (연사 참여)
- Thought Leadership 발휘 (2020/21 운영계획, 아젠다 선정 참여)
- 분기별 LEAD 실무그룹 미팅 참석

기업명	LEAD 분야	선정기준
AMORE PACIFIC	LEAD by Sustainable Lifestyle	건강한 아름다움과 웰빙,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확산
DGB금융지주 	LEAD by Responsible Finance	지속가능한 책임금융 이행 (녹색금융, 책임은행원칙 참여)
 (주)두산	LEAD by Sustainable Technology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솔루션 개발
	LEAD by ICT Innovation	ICT 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LEAD by Social Value Creation	Double Bottom Line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유한킴벌리	LEAD by Women's Empowerment	성 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역량강화 노력
	LEAD by Water Welfare	모두를 위한 물복지 실현, 자원 회복탄력성 강화 노력
 한국중부발전	LEAD by Sustainable Energy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성 증대
	LEAD by Pension and Welfare Service	지속가능한 연금과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
 한국투명성기구	LEAD by Transparency	국내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정책 제안 활동

[원문보기]

3.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세레모니



금 번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019'에서는 UNGC 와 유엔여성기구가 공동으로 발족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서약 세레모니가 진행되었습니다. WEPs 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가 2010 년 공동으로 발족한 이니셔티브로서, 총 7 개 원칙을 바탕으로 직장, 시장 및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성평등과 여성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지침 및 이행 방안을 제공합니다.

WEPs 세레모니에 참석한 기업 및 기관은 △유한킴벌리, △한국중부발전, △여성신문, △KB 금융그룹, △(주)두산, △BPW 한국연맹,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양도시공사, △한국임업진흥원, △CJ 제일제당, △교보생명, △(주)롯데, △DGB 금융지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소방산업기술원 등 총 16 곳으로, 위 기업은 향후 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을 이행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자사의 성평등 노력 및 성과를 공유하는 등 기업 여성역량강화에 기여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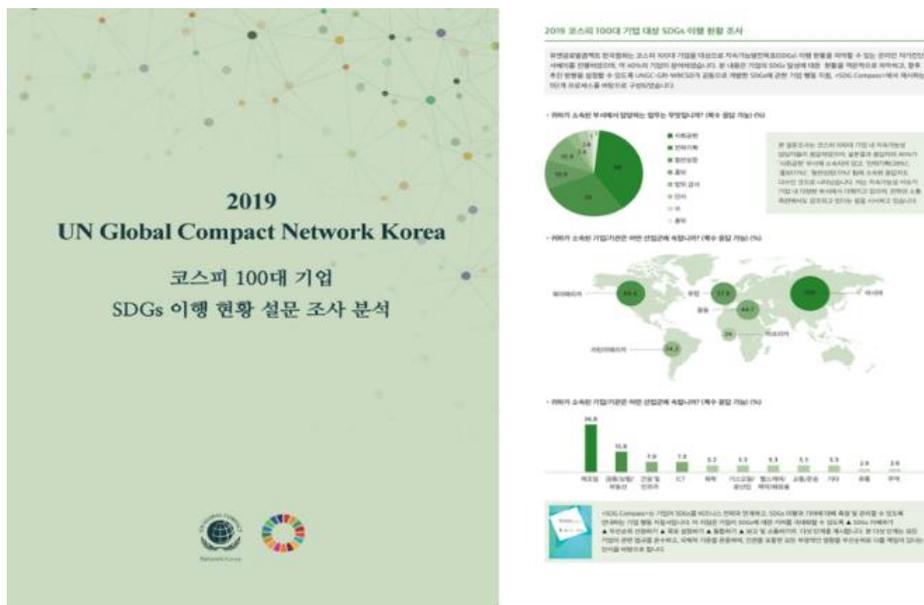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및 성 격차 분석 툴\(Gender Gap Analysis Tool\) 알아보기\]](#)

4. 코스피 100 대 기업 SDGs 이행 및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 결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019 Korea Leaders Summit>을 기점으로 두가지 의미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코스피 100 대 기업 SDGS 이행 현황 설문조사>와 <공공기관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는 각각 SDGs 와 인권에 대한 기업 내 인식 및 이행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현주소를 진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가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 및 향후 관련 연구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코스피 100 대 기업 SDGS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 (조사기간: 2019 년 9~10 월)

- 코스피 100 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설문조사
- 100 대 기업 중 약 40% 참여
- 기업의 SDGs 달성에 대한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UNGC-GRI-WBCSD 가 공동으로 개발한 SDGs 에 관한 기업 행동 지침에서 제시하는 5 단계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구성



5. 제 4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11/8)

파리협정 이후의 신기후체제 아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주하는 기후위기 대응 도전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WWF 와 CDP, UNGC 가 운영하는 “제 4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1) 기후금융이 G20 차원에서 경제 이슈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2) 기후변화 완화의 주요 방안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있어서의 글로벌 동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내 도입 정책에 관한 발표를 통해 기업의 관심과 기후행동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기후행동을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9 년 11 월 8 일(금) 13:30 - 16:00
- 장소: 롯데호텔서울 본관 36 층 피콕 스위트
- 참여기관: 국내 기업, 금융기관
- 공동주최: 세계자연기금(WWF),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UNGC), CDP 한국위원회(CDP)
- 후원: 한국씨티은행, 주한영국대사관
-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12:30 - 13:30	점심 식사	
13:10 - 13:30	등록	
13:30 - 13:40	개회사	
13:40 - 13:50	Intro - 국내외 동향 업데이트	WWF
13:50 - 14:10	"G20의 기후금융 사례 공유"	Michael Sheren, Senior Advisor, Bank of England
14:10 - 14:20	Q&A	
14:20 - 14:50	"글로벌 에너지전환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녹색요금제' 현황 및 'RE100 시범사업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김강원 신재생정책팀장
14:50 - 15:00	Q&A	
15:00 - 15:50	패널토론	CDP, UNGC, WWF
15:50 - 16:00	마무리	

※ 동시통역 및 점심 식사 제공

[\[원문보기\]](#)

6.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후원 및 협력 행사 안내

[공동주관] 제 2 회 열린 SDGs 포럼 (11/8)

제 2 회 열린 SDGs 포럼이 오는 11 월 8(금), 사랑의 열매 회관 지하 1 층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와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등이 주관하는 <열린 SDGs 포럼>은 2019 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이행을 점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에 대응해 한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만드는 공론장입니다. 국내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현황을 살피고 실천 사례를 나누며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의 방안을 모색하는 본 포럼에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 poster for the 2nd Open SDGs Forum. The top left features a graphic of colorful curved lines. The top right text reads '제2회 열린SDGs포럼'. The main title i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Below the title, the event details are listed: '일시 2019. 11. 8. (금) 09:00~18:00', '장소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1층 대강당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정동 1-17)', and '참가 인원 100여명'. The bottom right features a large graphic of a rainbow with various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SDGs, such as a sun, a person, a book, a heart, a bowl, a bar chart, a cube, and a double-headed arrow. The background includes a faint globe and a cityscape.

제2회
열린SDGs포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SDGs 정상회의 결과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

일시
2019. 11. 8. (금) 09:00~18:00

장소
사랑의열매 회관 지하 1층 대강당
*서울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정동 1-17)

참가 인원
100여명

[\[원문보기\]](#)

[협력] 제 4회 지속가능경영 비즈니스포럼 THE CSR 2019 Seoul (11/13)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는 『THE CSR 2019 | Seoul』은 지속가능경영 최신 트렌드와 CSR 우수기업 경영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지속가능경영 플랫폼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에게는 10% 할인혜택이 제공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사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OST



SPONSORS



PARTNERS



[\[원문보기\]](#)

본부소식

1. 기업인들이여, 모두 활동가(Activist)가 됩시다!

9 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는 2015 년에 2030 아젠다가 채택된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4 년 동안, 국가 지도자, 기업 리더, 시민사회 등은 2030 아젠다 이행을 위한 10 년 간의 활동을 앞두고 우선순위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진전사항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세계는 2030 년까지 17 개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은 우리 미래에 중대하고 실존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많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이 10 대 원칙을 지키고,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눈에 띄는 정도의 큰 변화를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2030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던 규모의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30% 이상의 기업이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고 글로벌 기업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확립할 때,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힘입어,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이며 의지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 가지 '글로벌 임팩트 이니셔티브(Global Impact Initiative)'를 출범시켰습니다.

첫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기업들에게 지구온난화를 1.5°C 이하로 유지하는 것에 맞춰 과학 기반의 목표를 설정하고, 2030 년까지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삼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의 사례와 같이 기업이 자사의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공급업체로부터 재생가능에너지를 요구하여 에너지 시장을 화석연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650 개 이상의 기업들이 과학 기반 목표(science-based targets)를 설정하는데 전념했고, 90 개 이상의 기업이 1.5°C의 시나리오로 자사의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칠레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변화 회의인 COP 25를 통해 이러한 수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역할 모델과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26조 달러 가치의 시장이 생겨날 수 있으며, 6천 5백만 개의 새로운 저탄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등 과감한 기후 행동은 좋은 비즈니스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 있기에 우리는 좀 더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030 아젠다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평등, 청년 교육 및 일자리의 동등한 기회,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과 노동권은 전부 역행하고 있습니다.

성평등에 있어, 여성의 세계 경제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목표는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맥킨지&컴퍼니(McKinsey Global Institute)는 경제적 성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2025년까지 전 세계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있어 28조 달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속도라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200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 세계 기업들과 협력하여 이사회, 최고 경영진에서 여성의 대표성과 리더십을 높이고 의식을 고취시키는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타겟 성평등\(Target Gender Equality\)”](#)이라는 두 번째 새로운 글로벌 임팩트 이니셔티브를 출시하였으며, 전 세계 공급망에 여성 기업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몇몇 기업은 동등한 여성 대표성이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 수준에 도달한 반면, 어떤 기업들에게는 30퍼센트를 할당하는 것이 여전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여성들이 공정한 참여 기회를 얻고, 대표성 및 리더십뿐만 아니라, 기업 실적 및 성과 측면 모두에서 실질적인 정점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저 한계는 30퍼센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 보고서 2019](#)와 [유엔글로벌콤팩트-엑센츄어 전략 CEO 연구 2019](#)에 실린 설문 결과를 통해 기업들이 10가지 원칙(약 90퍼센트)과 글로벌 목표(80퍼센트 이상)에 대해 훌륭한 인식과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 CEO들이 '기업이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71%가 해당 질문에 동의한 반면, 21%만이 현재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심혈을 기울여 비즈니스 전략 및

운영과 조직 및 공급망에 존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에 있어 10 가지 원칙과 17 가지 글로벌 목표를 완전히 통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 글로벌 임팩트 이니셔티브인 'SDG Ambition'을 발족한 이유입니다. 의지수준과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전 세계 1,000 여 개가 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실행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마힌드라그룹의 회장이자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장인 아난드 마힌드라(Anand Mahindra)는 “글로벌 목표는 향후 수십 년간 가장 큰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UNGA 주간을 통해, 2030 년까지 기후행동과 글로벌 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이 더 이상 이 자리에 모인 기업의 고위층만의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해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세대가 행동을 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요구하는 시위가 세계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변혁을 이끌어가야 할 시점에 세대 간의 분열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모든 기업 지도자들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고, 스스로 운동가가 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문보기]

2. 유엔글로벌콤팩트, '타깃 성평등(Target Gender Equality)' 이니셔티브 발족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0 월 1 일, 기업의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족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타깃 성평등([Target Gender Equality](#))' 이니셔티브는 기업 내 모든 부분에서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기한 내 목표 설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해당 이니셔티브를 통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의 이행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 번에 대한 기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74 차 유엔 총회 및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위크 (UN Global Compact Leaders Week)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장벽 제거에 더 많은 조치를 촉구하고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Target Gender Equality 는 유엔 총회의 부가 세션인 [Trailblazing Women Reception](#) 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리세 킹고 (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글로벌 목표는 여성 없이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은 모든 기업에서 균형 있는 성과 지표와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여성 참여에 대한 목표를 정립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앤 케언즈 (Ann Cairns) 마스터카드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은 세계 인구의 절반에서만 인재를 찾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는 많은 인재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마스터카드의 여성 국장 채용 절차를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는 조금의 노력과 확실한 목표 설정을 통해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eigh 운동의 창립자이자 운동가인 자밀라 자밀(Jameela Jamil)은 “기업을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성평등이 하루 빨리 실현되어 이러한 자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독려했습니다.

Target Gender Equality 를 시작하는 첫 해에는 20 여개국의 기업과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 “타깃 성평등(Target Gender Equality)”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railblazing Women Reception”의 비디오 영상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

3. 기업 리더 30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위해 UN 과 협력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주요 기업 리더들에게 SDGs 자금 조달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 월 16 일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조달에 향후 2 년 동안 민간부문에서 수조 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30 명의 영향력 있는 기업 지도자들과 협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마련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Global Inves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ISD)' 연맹은 올리버 베테(Oliver Bäte) 알리안츠(Allianz) CEO 와 레일라 푸리에(Rayila Fourie)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ohannesburg Stock Exchange) CEO 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 연맹을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이 연맹에 참여하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는 Allianz SE, Aviva, Banco Santander, Bank of America, Citigroup, Consejo Mexicano de Negocios, Emirates Environmental Group, Enel S.p.A, Infosys, Investec Group, PIMCO, Safaricom, Standard Chartered Bank, SulAmerica, TDC Group A/S and UBS Group AG 등이며, GISD 회원사 및 그 대표자 전체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점차 확대되는 불평등과 분쟁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 지구는 급속히 황폐해지고 더워지고 있다. 연맹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은 지금이 뛰어야 할 때라는 것을 인식하며 긴박감을 느꼈다고 한다."며, "건강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에 투자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좋은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국경을 넘어 금융부문, 심지어 경쟁자들과도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최근 유엔 총회에서 열린 개발 자금 조달 고위급 회담(High-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은 보건, 교육, 인프라, 기후 변화와 같은 중한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빈곤, 부패, 탈세와 같은 요소들이 개발도상국의 자원을 제한하는 가운데, 공식적인 개발 원조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 재정 수요는 연간 수조 달러로 추산되며, 모든 공공 자원의 자금을 극대화 시키더라도 여전히 상당한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이 시급합니다.

유엔의 최근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민간부문 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 인센티브 구조 및 제도적 조건을 포함한 모든 요건들은 장기적 약속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일라 푸리에(Rayila Fourie) CEO 는 "GISD 연맹의 설립은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의 규모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부문이 해야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는

자금조달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관련 공개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가격을 발견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자금을 생산적인 목적에 동원하는 자금조달 생태계의 필수다. 우리 모두는 할 일이 많고, 시작할 시간은 지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연맹은 기업 리더들의 전문지식, 영향력, 사업적 통찰력 등을 개발을 위한 장기적 투자 촉진과 SDGs 달성을 위한 진전 가속화를 위한 방법 고안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이 연맹은 다음과 같이 운영될 것입니다:

- 회사와 시스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장기적 금융 및 투자 실현을 위한 솔루션 제공
-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가 및 부문을 위한 추가 리소스 동원
- 비즈니스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
- 비즈니스 관행을 2030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건으로 조정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공이 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기업 사회의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본 연맹이 활동 기간 동안 실행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엔경제사회부가 주관하는 GISD 연맹은 유엔글로벌콤팩트, PRI, UNEP FI, UNCDF, UNDP, 세계은행그룹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SDGs를 위한 금융 혁신에 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행동 플랫폼”](#)은 2018년부터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해결책을 향한 혁신적인 민간 금융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행동 플랫폼은 <SDG 채권>, <외국인 직접 투자 및 민관 협력>, <SDG를 위한 기업 금융에 관한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2020년에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자금조달 전략과 기능에 통합하도록 하는 SDG 금융을 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최고재무책임자(CFO)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원문보기\]](#)

4. 유럽 최초, 25 억 유로 규모 SDG 연계 채권 발행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기업 금융 상품인 유럽 최초의 범용 SDG 연계 채권의 발행을 환영합니다.

다국적 에너지 기업 Enel 이 발행한 25 억 유로 규모의 다자간 트랑슈 채권은 큰 수요를 보이며, 기존의 약 4 배를 초과하는 가입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9 월 미국 시장에서 발행된 Enel 의 첫 번째 SDG 연계채권과 비교하여 약 15 억 달러 증가한 수치입니다.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SDGs 투자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와 같은 SDGs 연계 채권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의 흥수를 불러 일으켜, 글로벌 목표에 대한 투자가 주류 시장이 주류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를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금융 혁신"이라고 전했습니다.

펩시 (PepsiCo Inc.)는 10 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통한 순매출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아젠다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지원할 것이며, 기업 최초의 그린 본드(Green Bond) 가격을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및 포장, 운영 및 공급망의 탈탄소화, 그리고 수자원의 지속가능성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2018 년부터 이행된 '금융 혁신에 관한 유엔글로벌콤팩트 액션 플랫폼 ([UN Global Compact Action Platform on Financial Innovation](#))'은 기업이 확실한 지속가능성 솔루션을 통해 민간 금융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민간 금융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이드라인은 투자 가치사슬의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여 글로벌 목표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민간 및 공공부문 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와 유동성, 다양성을 포함한 SDG 투자 시장을 구축할 것을 장려합니다. 이번 Enel 채권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발간한 '기업금융 — 주류 SDG 투자 로드맵([Corporate Finance — A Roadmap to Mainstream SDG Investments](#))'에서 소개된 "기업 SDG 금융 통합 모델"을 정확히 적용한 사례입니다.

유럽에서 발행된 Enel 채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은 이자율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기업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Enel 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금된 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에너지 발전소의 55 % 이상(통합 기준)을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로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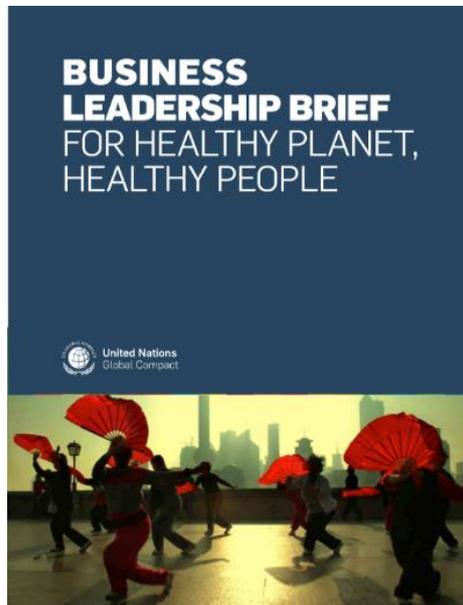
- 과학적감축목표(SBTi) 이니셔티브 가입과 파리 기후협정에 의해 2017 년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 년까지 70 % 줄이겠다는 Enel 의 약속에 따라 2030 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 수준을 kWh 당 125g 이하로 저감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 따르면 2030 년까지 SDG 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5 ~ 7 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공공 부문과 공공 금융이 SDG 이행의 핵심이지만, 민간 부문과 자본 시장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원문보기\]](#)

5. 발간물 소개

[발간물] 건강한 지구와 인류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 (Business Leadership Brief for Healthy Planet, Healthy People)



“모두가 번창하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건강한 지구와 인류를 위한 비즈니스 리더십 보고서는 기업이 정책, 시스템 및 운영에 건강과 역량강화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과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사고방식의 전환과 현재 시장 운영방식의 변화를 포용하려는 야심찬 기업의 혁신적인 행동을 고무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구 건강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 됩니다. 건강과 복지를 기후 및 환경 정책과 관행의 주요 결과로 두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회를 통해 동종업계 기업을 앞서갑니다.

- 의미 있고 연관성 있는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직원들의 지지 이끌어내기
- 인간 중심의 비즈니스 접근 방식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운영 허가 구축하기
- 지구와 사람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공동 이익을 촉진하는 행동을 우선 순위로 지정하여 조직 내외부의 자원, 속도 및 영향을 극대화하기
- 기후 및 환경에 대한 투자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 및 복지에 기여하는 면 측정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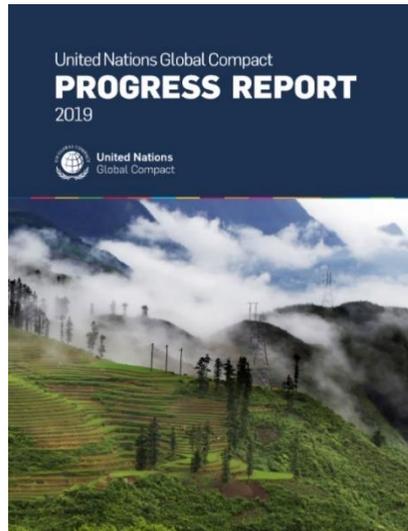
본 보고서는 공기, 물, 식량, 기후변화 분야의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수치화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5 가지 기업(AstraZeneca, ROCKWOOL, Merck & Co, Essity, L'Oréal)의 건강 및 환경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통합 사례 연구를 소개합니다. 또한, 변화를 위한 9 가지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변화를 위한 9 가지의 전략

1.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모범사례를 만듭니다.
2. 공정한 정보 흐름(information flows) 및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s)를 제공합니다.
3. 협업합니다.
4. 새로운 혁신을 창조합니다.
5. 문화, 행동 및 사고방식을 변화시킵니다.
6. 바람직한 인센티브 제도, 비즈니스 모델 및 자금 조달책을 형성합니다.
7. 새로운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를 크게 확장시킵니다.
8. 시스템의 변화가 안정화되도록 설계합니다. (안정화 단계)
9. 규칙, 조치 및 표준을 개발합니다.

[\[원문보기\]](#)

[발간물]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



“전 세계 사람들은 미완성된 대책이나 거짓 약속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고, 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사람과 지구를 위한 10 년의 목표 달성과 행동 실천을 시작합시다.”

- 2019 년 7 월,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 이행보고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기업들이 10 대 원칙을 내재화 하고 있는 방식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 온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며, 또한 기업들이 경영전략에 10 대 원칙과 2030 의제를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있는 방식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연례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기업이 주요 지속가능성 주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후와 성평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지난 1 년간 유엔글로벌콤팩트 각 국 협회 활동을 보고합니다. 끝으로 2030 의제 달성까지 10 여년이 남은 현재, 목표 달성을 위해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이끌어야 할 변화를 밝힙니다.

본 보고서의 많은 부분은 49 개 산업 분야와 107 개국을 대표하는 응답자 1,584 명의 결과를 분석한 올해의 연례 참가자 설문 조사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또한, 2019 유엔글로벌콤팩트-액센추어 CEO 전략 스터디(UN Global Compact-Accenture Strategy CEO Study 2019) 및 유엔사무총장의 2019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와 동일한 올해의 주요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다룬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의 핵심 정책에 10 대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 모든 이슈 영역에서 거의 90%에 머물러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자의 67%는 CEO 수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책과 전략이 개발 그리고/또는 평가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기업들 중 절반은 중요한 지속가능성 주제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나 공급망 전체에 10대 원칙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원문보기]

SDGs 소식

1. 물을 절약하는 청바지



리바이스 (Levi Strauss & Co.)는 Water<Less® 라인을 통해 물 사용을 최적화하고 청바지 제조 및 생산단계를 변경함으로써 80 억 리터 이상의 물을 절약하고, 20 억 리터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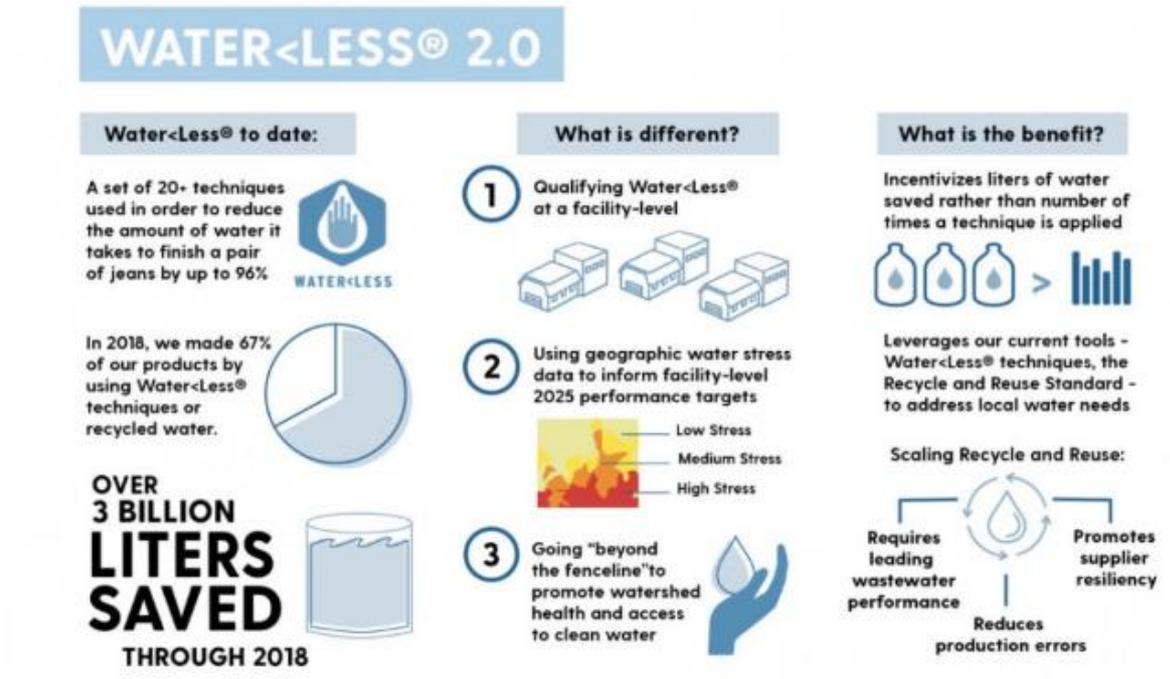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리바이스의 Water<Less® 라인은 섬유의 생산부터 매장에 이르기까지 제조 단계 전 과정에 투입되는 물 사용량을 감소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제품에 두가지 수명주기 평가를 수행했으며 많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30 억 리터 이상의 담수를 절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품에 대해 2 가지 수명주기 평가를 수행했으며 많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30 억 리터 이상의 담수를 절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바이스는 제조 과정 중 물 부족 지역에서 사용되는 물 사용량을 2025 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자연적으로 복구가 가능한 정도의 물만 사용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바이스는 수자원 관리 책무(CEO Water Mandate)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중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내고,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이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현재 67%의 리바이스 청바지가 Water<Less® 라인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2020년에는 그 비율을 80%까지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Levi Strauss & Co's 1.5°C commitment

리바이스는 과학 기반 목표를 1.5 ° C 시나리오에 맞게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입니다.

[원문보기]

2. [Goal 4, 7, 8, 15] 국내 SDGs 우수이행 기업 사례 - LG 화학



1. 기업 지속가능경영 이행 전략 및 현황

LG 화학은 'Sustainable Chemistry for Human and Environment'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UNGC 회원사로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사업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그린바이오 시장 진출로 미래 식량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p> <p>국내 작물보호제 시장점유율 1위, 종자 사업 육성</p>
	<p>레드바이오 시장에 진출하여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의약품 개발</p> <p>다양한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을 기반으로 UN공공시장에 진출, 신약 개발</p>
	<p>화학캠프, 화학놀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화학/환경과 관련된 교육 기회 제공</p>
	<p>RO필터 등 수처리 사업을 통해 수자원 부족이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깨끗한 물 제공</p>
	<p>자동차전지, ESS전지를 통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에 기여</p>
	<p>균형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장애인 중심 자회사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p> <p>원재료 중 하나인 코발트 공급망 내 아동노동 이슈 근절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하여 공급망 투명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 추구</p>
	<p>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까지 감축</p>
	<p>람사르습지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밤섬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p>

2. SDGs 전략 및 사례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

LG 화학은 '젊은 꿈을 키우는 LG'의 사회공헌 정책을 기반으로 청소년 교육 중심의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 교육복지중점학교 등 소외계층 중학생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실험과 재미있는 화학게임을 통해 화학에 대해 보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공동체 생활을 통해 비전교육, 안전교육 및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 년 최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9 회 개최를 통해 약 7,000 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내가 만드는 세상, 재미있는 화학놀이터

LG 화학은 사업장 인근 지역 교육복지중점학교 등 소외계층 초등학생 중심으로 2015 년부터 '화학놀이터(Fun Chemistry Park)'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학놀이터'는 4 개의 체험관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화학과 환경, 에너지 등의 다양한 주제를 직접 실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화학을 이용한 마술쇼를 함께 진행하여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화학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을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하고 화학놀이터 전 회차에 활동하게 하면서 사회적배려 일자리를 간접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

LG 화학은 본사 및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파트너십 프로젝트(Green Partnership Projec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사)에너지나눔과평화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맺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제공한 공공부지(중랑물재생센터) 내에 태양광 발전 기반의 '희망 Green 발전소'를 2018년 9월 완공하였습니다. 발전용량은 620KW, 부지면적은 약 4,250 평, 연간 발전기금은 약 6 천만원에 달하며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한전에 판매하고 이를 통한 수익금을 성동구 및 동대문구를 포함한 서울시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 또 다른 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은 청소년 복지시설 및 에너지 취약시설의 옥상에 녹화나 단열재를 설치하여 여름과 겨울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 이외 타 지방자치단체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옴은미래, LG 화학이 그리는 Green 세상

UN 에서 지정한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 월 22 일)과 연계해 여의도에 위치한 밤섬 지킴이 봉사단인 '그린메이커(Green Maker)'가 2017 년 출범했습니다. 밤섬은 여의도 개발을 위한 폭파로 사라졌다가, 한강 퇴적물이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쌓이면서 스스로 재생한 섬입니다.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심 속 철새 도래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9 년 생태경관보전지역, 2012 년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LG 화학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옴은미래, LG 화학이 그리는 Green 세상(Brighter Future, LG Chem's Green World)'이라는 공식명칭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사회공헌 활동을 새롭게 기획하였습니다. 2018 년까지 총 8 회 실시하였고, CEO 를 포함한 임직원 약 350 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나친 번식력으로 생태환경을 위협하는 위해식물을 제거하고, 하반기에는 장마 등으로 인해 섬에 쌓이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정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018 년 12 월에는 마포대교에 위치한 해님이 전망대에 '밤섬생태체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밤섬의 생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밤섬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VR/AR 체험 공간, 밤섬 전시관, 밤섬 교육 공간 등 3 개 존(Zone)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역 인재 확보 및 임직원 다양성 제고

균형적인 지역 경제 발전과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입사와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 년 산업 특성에 알맞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부산대와 전남대에 LG 스마트융합공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북대학교와 '배터리 맞춤형 Track 협약'을 체결하여 충북지역을 대상으로 전지사업에 특화된 이공계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LG 화학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다양성을 제고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중심의 자회사인 '행복누리'를 운영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7 년 기준 총 137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오창, 청주, 대전, 오송, 마곡 사업장의 미화, 스팀세차, 매점, 카페, 복지시설관리, 헬스키퍼, 포장, 동물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여성, 장애인, 사회적 소수자 등 다양성을 고려한 인력 구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코발트 공급망 내 아동노동 이슈 근절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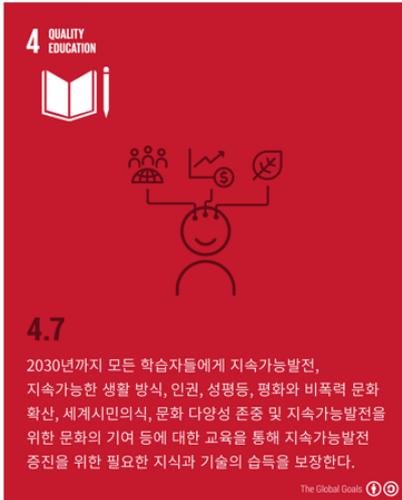
LG 화학의 주요 생산제품인 배터리의 원재료가 되는 코발트 채굴과정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의 아동들이 노동에 개입된다는 이슈가 2016 년부터 국제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LG 화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 년부터 원재료 공급사를 직접 점검하고, 현지의 채굴업체에 대해서도 실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 년부터는 미국 포드와 IBM, 중국 화유코발트, 영국 RCS 글로벌 등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코발트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였습니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으로 조작과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하여 공급망을 투명화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의 모든 이력을 데이터화해 공급망 검증 기관인 RCS 글로벌에 전송하여 검증을 마친 데이터는 IBM 의 블록체인 플랫폼에 분산 저장돼 조작과 해킹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아동노동 사용 등 인권침해가 있는 광산제품을 원천 차단하고 제품의 생산에 있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About These SDGs Goals

SDGs 세부목표 4.7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QUALITY EDUCATION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

The Global Goals 17

세계교육포럼(WEF)에서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 이행을 위한 다카르 행동계획(2000)을 채택했습니다. 동 행동계획에서는 삶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Life)에 법을 존중하는 문화, 민주적인 삶과 세계시민의식의 실천, 평등과 차별 철폐, 시민 윤리의 증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엔총회(2002)에서는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 10개년 사업'(UNDESD)을 채택하여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인천선언(2015)에서는 교육이 세계화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정치, 경제, 환경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이며, Education 2030 하에서 인권, 평화, 책임있는 시민의식,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의 기여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SDGs도 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합니다.



SDGs 세부목표 7.3은

에너지 효율 개선율의 두 배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7.3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효율의 개선율을 두 배로 늘린다.

The Global Goals 17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속가능발전의 자발적 이행계획입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2년에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는 모든 정부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적정가격의 청정 에너지 효율 및 에너지 보존 기술을 확산하여 국내 에너지 효율성 증대 프로그램의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요하네스버그 선언에서 중요성을 명시한 것을 계기로 2006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14차 세션에서 에너지와 산업을 주제로 에너지 소비 경향, 각 산업별 에너지 효율성을 논하였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SE4ALL)에서는 세 번째 목표로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SDGs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DGs 세부목표 8.7은

2025년까지 모든 아동노동 철폐를 목표로 합니다.



ILO에서는 노예에 관한 협약(1926),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1930), 노예제, 노예 거래, 노예제와 유사한 관행과 기관의 철폐에 관한 추가협약(1956), 임금수호에 관한 협약(1949)을 반영하여 강제노동철폐협약(1957)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 동 선언과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을 반영하여 1999년에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고든 브라운 영국의 前 노동당 총리가 유엔특별대사로서 MDGs 목표 2번의 보편적인 초등교육 보급은 아동노동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음을 발표하면서, 2012년 유엔에서는 2020년까지 아동노동 철폐를 선언하였습니다.



SDGs 세부목표 15.a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자원 동원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CBD)은 생물다양성 보전이 인류의 관심사이고, 이에 대한 각국의 책임을 확인하며, 상당한 투자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이익을 언급했습니다.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Aichi Biodiversity Targets)'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 협약 이행에 있어 재정 및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를 위한 재원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이행 역량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늦어도 2020년까지 모든 재원을 동원하고, 현 수준보다 대폭 확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해당 재원이 정부, 민간 부문 및 비정부기구 등 모든 영역으로부터 동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UNGC 회원뉴스

1. 한전, 2000 억원 규모 원화 지속가능채권 발행



김갑순 한전 재무처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마득락 미래에셋대우 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지속가능채권 발행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

- 한국전력이 2000 억원 규모의 원화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을 발행했다고 10 월 24 일 밝힘.
- 국내 에너지 기업이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날 한전이 발행한 원화 지속가능채권은 3 년물 1000 억원, 5 년물 400 억원, 30 년물 600 억원으로 구성됨.
- 발행금리는 전력채 유통수익률 대비 평균 3bp(Basis Point=0.01%) 이상 낮은 1.482%(3 년물), 1.646%(5 년물), 1.709%(30 년)로,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된 에너지 기업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채권 중 역대 최저 수준임.
- 조달된 자금은 기존 채권에 대한 차환과 국내외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임.

2. 수공, 청렴활동 강화 위해 한국투명성기구와 협력



- 한국수자원공사는 10월 7일 경기도 과천시 한강권역부문에서 (사)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함.
- 업무협약은 국제적인 부패측정 도구를 관리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삼자의 시각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반부패 및 청렴 실천 활동을 점검하고, 더욱 객관적인 반부패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됨.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반부패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임직원 청렴도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교육에 협력함. 또한, 투명, 윤리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원하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박정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은 반부패와 청렴 의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도록 반부패 및 청렴 활동을 더욱 강화해 가겠다."고 말함.

3. NH 투자증권, 'ESG 리포트' 국내 증권사 최초 발간

[단독] NH증권 'ESG 리포트' 국내 증권사 최초 발간

SK·현대차 등 업종대표 15개社
360여 페이지 걸쳐 심층분석
매년 종목확대해 하반기 발간

- NH 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최초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ment)를 토대로 기업을 분석하는 'ESG 리포트'를 발간함.
- 분석 대상 기업은 SK, 포스코, LG 화학, 한국전력,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SK 텔레콤, 강원랜드, 유한양행, 신세계, 한국콜마 등 각 업종을 대표하는 15 개임.
- 이창목 NH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 증진과 기업들의 지배구조 질적 개선 촉진을 통해 사회책임투자 확산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 올해부터 자산 총액 2 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됐고,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 역시 투자 집행에 앞서 기업들의 비재무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음.
-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스튜어드십코드 센터장은 "실제로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매니저나 주주 활동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이런 ESG 분석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매일경제](#)

* 본 콘텐츠는 [최근 CSR 동향 기사를 발췌한 글로 협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CSR 뉴스

1. “성장판 닫힌 지구촌...기업들 힘 모아야만 글로벌위기 돌파”

매일경제

“성장판 닫힌 지구촌...기업들 힘 모아야만 글로벌위기 돌파”

2019년 10월 31일
507면 4면(제1)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이끌어오던 다자주의가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의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렇게 강조했다.

유엔글로벌compact (UNGC) 한국협회(회장 이동건)는 이날 UNGC 회원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등 인원이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을 개최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빈곤, 기후변화, 분쟁, 부패 등 심각한 다중적 도전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 공무원을 거쳐 유엔 사무총장까지 50년 동안 외교 관련 공직에 있으면서 이만큼 국제사회가 어지러웠던 적은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세계를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안정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가 훼손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업들이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도 흔하지는 않 수 없는 일”이라며 “UNGC 같은 조직이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1만40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반기문 유엔글로벌compact(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이 지난 24일 열린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에 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UNGC 한국협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기후변화·빈곤 등 난제 산적
1만4천개 기업 동참이 큰 힘

구현모 KT 사장

소외지역 연결·질병 확산 방지
사람 중심 지속가능발전 모색

세계급지의 큰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어 어려운 힘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254개 유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가거점환경정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언급했다. 반 전 총장은 “한국에 있는 60여 개 외곽발전소 중 27개가량을 내년에도 닫고 기업의 미세먼지 축적을 위한 모니터링 전국에 배치하는 등 단대한 정책으로 환경문제를 바로잡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조연설자로 나선 구현모 KT 사장은 KT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행한 ‘기가스토리 프로젝트’와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들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KT의 비즈니스 철학을 설명했다.

기가스토리 프로젝트는 KT가 가진 첨단 기술을 활용해 소외지역이나 커뮤니티를 서로 연결해 소외된 이들을 줄여 나가는 사업이다. 예컨대 노인·미디어, 헬스케어, 교육 분야 등에 적용해 배려도, 교통도, 편향 등 6개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감염

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손잡고 개발한 솔루션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2016년 글로벌 리더스 서밋, 2018년 다보스 포럼 등에서 이 솔루션을 소개했으며 내년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논의될 것이 예상된다. 가나, 라오스, 케냐 등 국가와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의 글로벌 론칭에 대해서도 협업하고 있다.

구 사장은 “통신 사업은 변화가 정말 빠르고 새로운 기술을 수시로 출시하는 게 속명인데 생각보다 정체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속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될까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회사에서 성장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개념이고, 이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성장해답이 바로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도록, 개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구 사장은 또 “기술 기업인 KT는 기술이 단 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나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리고 적어도 KT의 플랫폼에서는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10대 원칙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등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흐름과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인 UNGC 한국협회가 2011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코리아 리더스 서밋에서는 “UNGC 한국협회 리드(LEAD) 그룹”이 최초로 발족되기도 했다. UNGC 한국협회 회원기업 및 기관들의 대외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회원인 그룹인 LEAD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각 부문에서 선정됐다. 이외에 UNGC와 유엔여성기구가 공동으로 발족한 ‘여성역량강화원칙(WEPAs)’ 세리머니도 함께 진행됐다.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업에도 시대적 요구인 만큼 비전과 도전 과제, 대응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흥준 기자
139.9*21.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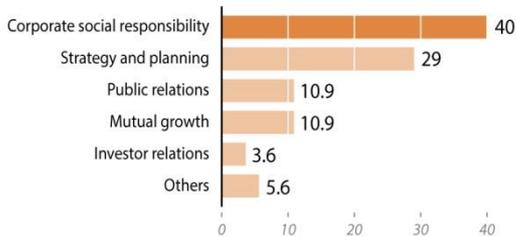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이끌어오던 다자주의가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동의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기업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함.
- 반 전 총장은 "전 세계가 빈곤, 기후변화, 분쟁, 부패 등 심각한 다중적 도전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 또 다른 기조연설자로 나선 구현모 KT 사장은 KT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행한 '기가스토리 프로젝트'와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들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KT의 비즈니스 철학을 설명함.
- 구 사장은 "기술 기업인 KT는 기술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회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임.

매일경제

2. Korea Leaders Summit talks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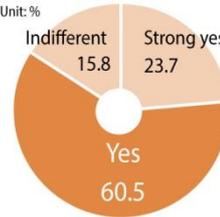
What department in your company is in charge of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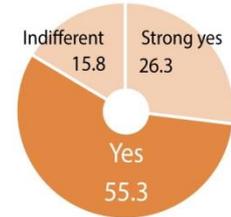


Do you think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as a positive effect on company's financials?

Unit: %



Do you think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s a must for companies?



Source: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Network Korea held the Korea Leaders Summit 2019 on Thursday, encouraging local companies to more actively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jointly tackle social issues like climate change and gender equality.
- A survey by the UNGC Network Korea unveiled Thursday shows that the perception is shifting and firms are starting to see SDGs as a serious way to be more competitive.
- Based on a survey of the top 100-listed companies on the Kospi, 29 percent of respondents said SDGs are pursued by their companies' strategy planning team and 3.6 percent by the investor relations team. Moreover, when asked whether they think pursuing SDGs is a must for companies, 26.3 percent replied with a strong yes, while 55.3 percent answered yes.
- UNGC Network Korea launched a local "lead group" for the first time and awarded 10 companies and institutions that were selected to be a part of the group for their progress in sustainable business development.

[Korea Joongang Daily](#)

3.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성료... “인권경영, 선언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야”



-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한국협회가 10 월 24 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19 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 (UNGC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함.
- 특히, 기업과 인권세션에서는 UNGC 한국협회는 지난 8~10 월 국내 80 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의 기업과 인권 이행 현황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함.
- 설문에 응답한 공공기관의 93%는 인권경영 지침을 수립하고, 78%는 인권경영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협력사에 인권경영을 독려한다는 비율은 전체의 28%, 인권경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거나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는 비율이 전체의 25%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
-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은 “기업은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와 별개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독립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인권경영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

[더 나은 미래](#)

4. 국민연금 "운용사보고서에 `사회책임투자` 담게 할것"



△24일 열린 `2019 코리아 리더스 서밋`세션에서 최성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과 원신보 블랙록 본부장, 임대웅 UNEP-FI 한국대표(오른쪽부터)가 발표하고 있다.

- 24 일 `2019 코리아 리더스 서밋(Korea Leaders Summit)`에 마련된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책임투자` 세션에서 최성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은 "내년부터는 자산운용사들이 위탁운용보고서를 낼 때 기업의 책임투자(ESG 투자) 요소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며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 역시 ESG 투자 관련 요소를 넣고 코멘트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잘하는 증권사와 못하는 증권사에 차등을 두겠다."고 말함.
- 임대웅 UNEP-FI 한국대표는 "지속가능 금융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를 평가할 때 기후를 비롯한 ESG 관련 위험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함.
- 원신보 블랙록 스튜어드십팀 본부장은 "기업의 평판 관리가 중요해짐과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도 책임투자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며 "향후 20 년간 밀레니얼 세대가 상속할 자산 규모만 원화 기준 35 경원으로 기존과 다른 (책임투자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지닌 밀레니얼 세대가 점점 기업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함.

5. “석탄발전 과감하게 줄인다” . . . 2030년 온실가스 24% 감축 목표



- 정부는 10 월 22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 2 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2030 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5 억 3600 만 t 이내로 정함. 이는 2017 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24.4% 줄어든 규모임.
- 목표달성을 위하여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등 8대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과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이상기후 현상에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 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일 예정임.
- 정부는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상에 참여하고, 친환경 생활·소비 지원을 늘리는 등 기후변화 대응 기반도 강화할 예정임.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0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SAP 코리아
- 법무법인 지평
- (주)태광실업 (재가입)

2. COP/COE 제출회원

10 월 1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17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한국남동발전(주)
- 한국철도시설공단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SK 하이닉스
- 인피니티 컨설팅
- 스완커뮤니케이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주)LG 생활건강
- 현대엘리베이터
- 롯데홈쇼핑
- 한국근로복지공단
- 성남도시개발공사
- 환경실천연합회
- 한국자유총연맹
-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 사회보장정보원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 년도 UNGC 회원 연회비 청구 안내



1. Select Participant or Signatory

● SIGNATORY	● PARTICIPANT	● PARTICIPANT + ACTION PLATFORMS & LEAD ELIGIBILITY
<p>Signatories actively engage at their national or region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Signatories receive:</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2. Basic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3.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ctively engage at the global level with the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receiv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ll access to global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ir country-specific resources and activities. • Full access to the UN Global Compact digital platform and tools. • Opportunities to fully engage with the Global Compact Local Network in their country or region. 	<p>Participants additio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engage in Action Platforms (learn more) and thereby gain eligibility to be a UN Global Compact LEAD company.</p> <p>Use this form to select the Action Platforms you would like to engage in during 2018.</p> <p>Companies that engage in two or more Action Platforms, pass an integrity screen and submit an Advanced COP are eligible to be recognized as LEAD.</p> <p>Please note, Action Platform annual contributions are in addition to the Participant tier annual contribution.</p>

2019 년도 연회비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신(新) 연회비 정책을 기반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UNGC 2030 비전 및 2020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자발적 기여에서 의무로 바뀌는 신(新) 연회비 정책을 도입하고, 본부와 한국협회 간의 재정 배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UNGC 의 모든 영리 회원사는 참여 정도에 따라 참여레벨(Participant 또는 Signatory) 선택 및 매출액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추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9 년 1/4, 2/4, 3/4 분기, 4/4 분기 청구 대상 회원]

가. UNGC 본부 및 한국협회 참여회원 (1/4, 2/4, 3/4 분기, 4/4 분기 납부대상)

- 참여레벨 (Participant / 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 연매출 500 억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나. UNGC 본부 참여회원 (한국협회 미참여 회원)

- 참여레벨 (Participant/Signatory) 선택 완료 기업

<1/4 분기, 2/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경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BGF 리테일, 한국조폐공사, 테크로스, JB 금융지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구미시청, 울산광역시 남구청, 한국벤처투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안산도시공사, 극지연구소,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전자인증, 리인터내셔널, 마콜 컨설팅 그룹, 동명전기, 바이오제네틱스, 제니컴, 디씨티 오토, 비엘에이치아쿠아텍, 제주관광공사,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미술등록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카이스트 경영대학, 신한대학교, 늘푸른직업재활원, 환경실천연합회, 메디피스, 열반유스아카데미, 한국품질재단, 밀알심장재단, 사회복지법인 열매나눔재단

<3/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NH 투자증권, CJ 제일제당, 케이티에스테이트, 롯데제과, SK 이노베이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서스틴베스트, 나인, 인피니티컨설팅, 델타이엔씨, 원광대학교, 유엔한국협회,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충북대학교

<4/4 분기 연회비 청구 대상기업>

현대모비스, LG 디스플레이,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LG 생활건강, SK 주식회사, DGB 금융지주, 코오롱 인더스트리, 한화건설, 티비에이치글로벌, 삼덕통상(주), 울산항만공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스완커뮤니케이션, 씨엔커뮤니케이션, (주)에프엠브이디, 세일인터내셔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전문대학원, 한국인권재단, 진해장애인복지관, (재)동천,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한국투명성기구,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아시아정당국제회의사무국, 국민연금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레벨 선택을 안내 받은 매출액 500 억 이상 기업은

참여레벨 (Participant 또는 Signatory)을 조속히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레벨 선택 관련 기한 변경 또는 의견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